

“진안, 위기 아니라 기회”

전춘성 군수 후보 ‘모두의 진안군수 출정식’ 열고 주민들에 지지 호소

더불어민주당 전춘성 진안군수 후보는 안호영 국회의원 후보 관계자들과 함께 7일 진안공용터미널 앞에서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모두의 진안군수 출정식’을 성대히 열었다.

이날 출정식에는 전희재 전 전북도 행정부지사, 김문중 선대본부장, 유창희 전 전라북도의회 부의장, 이한기도의원, 이우규 진안군의회 부의장이 찬조연설을 했으며 정옥주, 김민규 군의원, 배성기 전의원이 참석했다.

단상에 오른 전춘성 후보는 “진안은 지금 위기가 아니라 기회를 맞이했다”고 말문을 열고 “집권여당의 강력한 힘과 문재인 대통령, 정세균 총리, 안호영 국회의원과 함께 진안발전을 확실하게 만들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특히 전희재 전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많은 주민들이 신성한 투표로 선출된 역대 군수들을 세습이라고 매도하는 분열주의자들을 경계해야 한다”며 “전춘성 후보는 30년을 행정에 몸담은 준비된 군수”라고 강조했다.

김문중 선대본부장은 “집권여당의



더불어민주당 전춘성 진안군수 후보가 7일 진안공용터미널 앞에서 ‘모두의 진안군수 출정식’을 연 후 안호영 국회의원 후보 관계자들과 함께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다.

후보인 전춘성 후보에게 압도적인 표를 몰아주어 진안발전의 디딤돌을 삼자”고 당부했다.

이날 출정식에는 전춘성 후보의 딸 전소정 양이 마이크를 잡고 “아버지 전춘성 후보는 감사의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착한 사립이”며 “그동안 30여년간 군민과 함께하느라 가정을 소홀히 해서 서운한 아버지였지만, 진안을 위한 시간

이라고 생각하니 자랑스럽다”고 말해 참석자의 큰 박수를 받기도 했다.

한편 전춘성 후보는 진안군에서 32년간 공직생활을 하며 진안읍장, 행정복지국장 등을 지낸 행정전문가이며, 현재는 한국스카우트 전북연맹 진안 지구연합회장과 더불어민주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 4~7월 농업기계 임대료 50% 인하

코로나19 장기화 따른 농가 경영부담 해소 위해

무주군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농가들의 경영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시적(4~7월)으로 농업기계(이하 농기계) 임대료를 50%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로 농가들은 작년 동기 대비 2,200여만 원의 이용료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무주군은 농기계 이용률도 2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농기계 임대는 농업기술센터 내 무주본소를 비롯해 무주·안성본소 사업장에서 모두 받을 수 있으며 농작업 대행료는 제외된다.

무주군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 농업기계팀 배진수 팀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농산물 소비위축과 외국인 근로자 입국 지연에 따른 인력부족 등으로 농가들의 부담이 날로 가중되고 있다”라며 “농업기계 반 값 임대사업이 코로나19 상황을 극복해 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홍보와 운영에 만

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무주군 농기계 임대사업장에서는 76종 382대의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으며 농기계 임대료를 비롯한 하우스 정지작업 외 9종의 농작업 대행료, 농업기계 순회교육 부품대금 등은 카드로도 결제가 가능하다.

무주군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농기계 임대 사용 신청은 3,666건에 임대일수 4,202일로 전년 대비 118% 증가율을 보이는 등 임대농기계 이용농가가 꾸준히 늘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본격 운영

장수군이 멧돼지와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영농철 농작물 및 인명 피해 예방을 위해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본격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군은 이달부터 7월 말까지 운영되는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은 관내 모범 수렵인 31명으로 구성됐으며 멧돼지와 고라니, 까마귀, 까치 등 유해동물을 포획한다.

1인당 포획허가수량은 멧돼지는 4마리, 고라니 20마리, 까마귀·까치는 각 30마리 이내로 제한된다. 멧돼지·고라니 등으로 인한 피해 농가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고를 하면 즉시 출동해 포획활동을 펼치게 된다.

포획 시 멧돼지는 20만원, 고라니는 7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군은 예기치 않은 사고에 대비해 피해방지단 31명 전원에게 수렵보험 가입

과 함께 수렵조끼와 안전장비를 지급했다.

차주영 과장은 “산·연접 농경지에 출입하거나 등산할 때는 눈에 잘 띄는 옷을 입고 해가 졌을 때에는 산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농민들과 주민들의 피해 예방을 위해 안전수칙을 잘 지켜 방지단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난해 수확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해 멧돼지 301마리, 고라니 567마리 등 총 1151마리를 포획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소독 및 청소, 이벤트 전문 업체인 (유)좋은 세상 MJ에서 무주읍에 소재한 사회복지시설 6곳에 대한 무료 방역서비스를 진행했다.

사회복지시설 무료 방역 실시

무주읍, 소독·청소 전문 업체 좋은 세상 MJ와 6곳 대상 진행

무주읍행정복지센터(읍장 이종현)는 소독 및 청소, 이벤트 전문 업체인 (유)좋은 세상 MJ에서 무주읍에 소재한 사회복지시설 6곳에 대한 무료 방역서비스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활동은 방역을 통해 코로나19 예방에 기여하고 싶다는 업체 의견을 반영해 진행하게 된 것으로, 천연 살균 약품인 피톤치드를 활용한 방역으로 큰 호응을 얻었다.

정을운 대표는 “어린이나 어르신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인 만큼 인체에 무해한 약품을 사용해 소독을 마쳤다”라며 “코로나19로 경제도 어렵고 감염 우려에 모두가 힘든 상황 속에서 지역과 이웃을 위해 중요한 일을 했다”는 자부심을 느낀다”라고 밝혔다.

지역아동센터와 요양원 등 이날 방역 현장에는 “좋은 세상 MJ”와 무주읍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이 함께 해 의미를 더했다. 공무원들은 이날 시설 출입문 손잡이를 비롯한 각종 집기들

을 소독제로 일일이 닦았다. 평화요양원 장병문 원장은 “매일 자체 소독을 실시하고는 있지만 코로나19가 언제 진정될지 모르니 혹시나 하는 생각에 시설은 늘 긴장 상태”라며 “일주일에 2번씩은 꼭 이렇게 대대적인 소독을 해주니 감사한 마음”이라고 전했다.

무주읍행정복지센터는 지난 3월부터 코로나19의 지역 내 감염을 막기 위해 관내 집단거주시설과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정기 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점검을 비롯한 확산예방을 전개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2010년 설립된 (유)좋은 세상 MJ는 해마다 관내 기관 차량 및 주민 차량을 대상으로 무료 방역소독 봉사 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으며 연말에는 어려운 이웃들에게도 앞장 서는 등 나눔 실천에도 적극적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윤일암반일암 관광지 이용 제한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까지 야영장·탐방로 등 주요 공공시설물

진안군이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 2주 연장 방침에 따라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까지 윤일암반일암 관광지 야영장 및 탐방로 등 주요 공공시설물에 대한 이용을 제한한다.

아울러 관광지 내 공중화장실 등 공공시설물에 지속적인 소독 방역으로

청결을 유지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 두기가 2주 연장됨에 따라 불편을 더 감수해야 하지만 지역사회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인 만큼 적극적인 동참 바란다”고 당부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역 소식통

진안군, 소규모 대기배출 사업장 방지시설 개선 추진

진안군이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줄이기에 나섰다.

군은 질소산화물, 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정부의 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라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 방지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최근 환경부에서 올해부터 미세먼지 발생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고자 기존 대비 30%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는 방침에 따라, 진안군은 관련 예산 2억원을 투입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관내 소규모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정화시설 개선을 위한 전체 사업비의 90%(자부담 10%)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 3월부터 사업 신청을 공고한 후 현재 5개 사업장에서 지원을 희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군은 신청 접수가 완료되는 이 달 10일 이후 관련 서류와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전문가 진단을 통해 내 달부터 본격적으로 개선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홍삼송 제작·발표

진안군이 진안홍삼을 홍보하기 위해 진안홍삼송을 제작하여 발표했다.

진안홍삼송은 트로트와 트렌디 두 가지 버전으로 제작됐으며, 트로트 걸그룹 ‘레이디티’ 보컬인 가수 이현주가 불렀다.

트로트 버전은 단순한 노랫말을 국악 풍으로 작곡하여 중장년층에게 익숙하며, 트렌디 버전은 재미있는 가사에 흥겨운 멜로디를 접목하여 젊은 층의 취향을 저격해 만들어졌다.

두 버전 모두 진안홍삼의 면역력과 기억력 증진 효과를 강조하여 진안홍삼의 효능을 분명히 전달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명기 전략산업과장은 “진안홍삼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 중이며, 그 일환으로 홍삼송 제작을 기획하게 됐다. 홍삼송이 진안홍삼의 우수성을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우리가족 면역을 생각한 NK프로젝트

N·1

엔·원

산학 공동연구 프로젝트

☑ **NK 프로젝트 N·1**

연세대학교 임상영양연구소 이종호 교수 연구팀
고려대학교 식품공학과 이명원 교수 연구팀

특허받은 유산균으로 만든 기능성 발효유

☑ **NK프로젝트 N·1**

• nF1 + 카제인균 + 비피더스 유산균 함유

☑ **N·1이 NK세포에 주목합니다.**




푸르밀 NK프로젝트 홍보대사 하지원